현불 논단

불교문화기금 조성 나서자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국보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재인
한국은 명실상부한 '불교문화국'
서구화된 실생활과 불교와 간극
보존 · 활용 양방향서 고민해야

결국 재정지원 우선적 선결과제
문화유산 보존 시민 참여 운동인
英 내셔널 트러스트 벤치마킹을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불교문화국이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중 56% 이상, 보물의 65%가 불교문화재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불교의 나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이는 위의 문화재처럼 점차 불교와 사찰이 박물관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과반 이상이 불교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이 실생활에서 향유되고 창작되는 생활 문화는 시간이 갈수록 불교문화와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현대화되고 서구화된 문화가 주도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불교계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한국의 불교문화는 산중과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과거라는 시간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한국불교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축선상의 양방향의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한다. 과거로 향한 과제는 지난 2000년간 이어져온 한국불교의 문화적 자산의 보존과 계승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이라는 정부기관이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도 문화재청에는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당연히 그 과반이상의 예산을 불교문화재의 보존에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조2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는 하나 전체 약 5000개에 달하는 문화재 규모와 함께 끊임없는 보수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찰과 같은 불교문화재만 놓고 봐도 그 예산 규모가 결코 충분할 리가 없다는 판단이 쉽게 선다. 그렇다고 마냥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만 계속 요구하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바로 미래의 방향으로 불교문화를 어떻게 창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숙제로서 결코 마침표가 없는 수행 정진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각오를 필요로 하는 과제일 것이다. 대중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같은 공기로 숨을 쉬면서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창의적으로 이끌어주는 문화적 선구자의 등장이 절실한 시기이다. 과거 경전을 널리 대중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일념에서 창의적으로 주조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 등장한 것을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인 발명품에도 역시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과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래의 새로운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기반이 먼저 조성돼야함이 필수적인데, 이를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의미있는 사례가 바로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일 것이다.

1895년에 시작된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국가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단체로서 현재 영국에서 약 600만 명의 일반회원과 290만 명의 후원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도 재정수입은 약 1조원으로 이 재정수입의 내역을 보면 회원 후원금 수입이 약 40%에 해당하는 4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입장료 수입과 함께 정부기관과 복권 기금 등에서 지원금의 형태로 받아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미래를 주도할 문화 창달에 전 불교계가 나서야 된다. 불교계 스스로 종단과 신도가 합심하여 원천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보조를 맞춰 정부와 기업이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문화 기금의 조성이 절실한 때가 온 것이다.

社 說

비구니 승가 위상 정립 계기되길

6월 17~18일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는 특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세계 석학과 비구니 스님 15명이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발전 방안들이 논의됐다.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 툽텐 죄된 스님은 미국계 티베트 불교 스님으로서 공히 비구니계를 수계받을 수 없는 티베트 불교계의 현실을 꼬집고, 수계 방안을 제시했다.

창쉔 스님이 발표한 대만불교의 사례에서는 선각자들의 양성평등적 교육 시스템이 비구니 승가와 대만불교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발표에서는 현재 한국 비구니 승가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비구니 수행공동체 설립, 국제 사미니 강원 개설 등 발전 방안을 공유됐다.

무엇보다 이날 학술대회가 의미가 있었던 점은 전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영향력을 떨치는 티베트불교나 남방불교에서 비구니계를 수지 못하는 현실은 불평등한 처사다. 양성평등이 세계적 화두가 된 시대에 성 불평등은 불교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불교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쏘모 스님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대행 선사가 강조했던 "계급과 성별을 비롯한 어떠한 종류의 차이에도 차별이 없다"는 가르침을 구현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나눔의집 '정상화' 기대한다

최근 나눔이집 대표이사로 선출된 성화 스님이 6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주요 사업 계획과 포부를 밝히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2020년, 내부 고발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지상파 한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후 혼란을 거듭하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지 횟수로 벌써 3년 째이기에 대표이사 선출은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성화 스님은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20여 년간 헌신하며 복지계를 선도해왔기에 불교계 안팎으로 빠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인다.

성화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로시설로의 위치 정립' '역사관 재개관' '법인 시스템 정비' 등 크게 3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무엇 하나 빠질 수 없는 과제다. 할머니들을 평안하게 모시는 것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야말로 나눔의집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나눔의집 개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나눔의집은 1992년, 불교계 원력으로 만들어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로 알리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운영상의 문제로 최근 물의를 빚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눔의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무게는 여전하다.

나눔의집이 하루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설립정신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불교계의 원력으로 시작된 만큼 불교계 전반의 관심과 애정 역시 빠질 수 없다.

대표이사 성화 스님이 나눔의집 본연의 역할과 원칙, 역사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상 운영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는 없다

제주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태고의 정기가 흘러내린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 서쪽 줄기는 탐라계곡을 따라 용연과 한두기로 내려오고, 다른 동쪽 줄기는 관음사를 품고 있는 아미봉 줄기를 따라 산천단을 거쳐 산지천으로 흘러 제주항에 이른다. 칠성의 기운을 받은 곳에 옛 탐라인들은 성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지명은 남아 성안의 칠성통을 두고 동문통과 서문통으로 나뉜다. 그곳에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상 제주민속자료 1, 2호인 동 · 서자복(미륵)이 제주성의 수난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원진은 〈탐라지(1653)〉에서 '만수사는 일명 동자복사라 하며 건입포 동쪽 해안 위에 있다' 라고 하였다. 이 만수사에서 바라보이는 서편에는 해륜사가 있다. 두 사찰은 모두 고려시대에 창건됐다.

그 후 조선의 배불정책으로 쇠퇴를 거듭하다가 1702년 목사 이형상에 의해 훼철되었다. 그는 〈남환박물〉에서 "주성 동쪽에 만수사가 있고 서쪽에 해륜사가 있어서 각각 불상은 있으나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 자체에서 한 사람을 정하여 돌보게 하고, 또 네 명절 때면 서로 모여서 예불할 따름이다. 나는 말하기를 점차 오래 둘 수 없으니 곧 두 사찰을 헐어서 공해로 옮겨 세우라 했다"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도 두 불상은 현재까지 수호불로 남아있다. 사찰과 함께 불상을 훼철하였던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배불의 의지가 아무리 강한 목사에게도 이 두 불상을 향한 도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수호의 의미는 도민의 안녕을 비는 입춘굿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제로 지속되고 있다. 도민들은 그 사찰 주변의 언덕을 '절동산' 이라 부른다.

이와 함께 기록되지 않아 잊혀가는 이야기가 몇몇 노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동한두기물은 예전에는 돌로 싼 원형 산물 터를 갖고 있었다. 이 산물은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다는 의미의 갈마수, 혹은 스님들이 마시던 물이라고 하여 '중물' 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버랭이깍' 으로도 불렸다. 그 중물은 선반물 동북쪽에 위치하는데, '콩큰물' 이라고도 한다. 절에서 이 물에 콩을 담가 불려서 두부를 만들거나 콩나물을 길렀기 때문에 콩을 큰(담근)물이라 한다."

두부는 주로 사찰음식으로 발전됐는데, 이색의 〈목은집〉 '대사구두부래향' 이라는 시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미뤄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전래됐을 것이다. 이후 조선 시대에 두부는 사찰에서 관청에 공급하게 하거나, 왕릉 옆에 능침사찰을 짓고 조포사라 하여 제물로 바치게 하였다.

이로 미루어 해륜사 앞 콩큰물에서 만들어진 두부는 사찰에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제주 관아와 선비들에도 공급됐을 것이다. 콩큰물 두부 제조 기술이 전승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에도 '서문' 의 이름을 내세운 두부는 제주지역에서 유명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제주성 동쪽 조천관 터 근처의 '절간물' 이라 불리는 용천수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사찰 관음사로 가는 길이라 하여 개남길(관음길)이라 불리는 올레길을 따라 걷다가 조천초등학교 뒤 대섬의 초입에 이르면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도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고 전한다.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